

최선을 다하여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빈 1995년 (26세) | 여 | 구직중

✉ binsuzy95@gmail.com

☎ 010-3077-1271

☎ -

🏠 (08786) 서울 관악구 관악로17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회사내규에 따름	서울전체 정규직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4.03 ~ 2020.02	졸업	남서울대학교 (충남)	멀티미디어과	3.28 / 4.5
		논문&졸업작품 : 당뇨 식단 설계 및 판매 웹사이트		
2011.03 ~ 2014.02	졸업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전문(실업)계 (세무행정과)	-

경력 신입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18.12 ~ 2019.01	인턴	아사달 / 해시넷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 작성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15.11	자격증/면허증	MS PowerPoint 2003	Microsoft	최종합격
2011.03	자격증/면허증	그래픽기술자격(GTQ) 2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Adobe XD
Adobe Photoshop
Spring
Java Servlet
JSP
PL/SQL
Oracle SQL
Java
JavaScript
CSS3
HTML5

자기소개서

[성장 배경]

[내일을 향한 작은 노력들]

개발은 저에게 어려운 관문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컴퓨터라는 세상은 연결고리입니다. 문서 작성과 컴퓨터를 좋아해 특성하고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과목을 들으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처음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웹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직접 디자인한 것을 웹 페이지로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깊이를 느꼈습니다. 개발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휴학 중 다른 직업을 경험해본 적도 있었지만 적성에 안 맞음을 느꼈고 개발에 다시금 시선이 갔습니다. 좋아하는 일인데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도중에 포기할 순 없다며 안 되면 될 때까지 포기란 없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개발자라는 직업, 관심 있던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따라가다 보니 확실히 찾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뒤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한 성장 발판이 될 것 같아 IT 교육센터에서 SW 웹 개발자 교육과정을 수강했습니다. UX/UI 구현에 필요한 HTML, CSS, JavaScript, Java 개발, DB 구축, JSP 웹 서버, Spring 프레임워크를 배웠고 실무 기반으로 한 웹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중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웹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UX/UI 영역을 동적으로 표현하는 JavaScript라는 언어에 매력을 느꼈고 프로젝트를 할 때도 프론트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좋아하던 일이고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 최선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임하다보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이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격의 장단점]

[경청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가 바탕이다.라는 생활신조가 있습니다. 개발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일이기때 소통과 신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귀 기울여 듣는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며 모든 업무가 혼자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결되더라도 누군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과 업무 분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많아 신뢰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때 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역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는 코드를 공유하며 함께 오류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찾아 발전할 수 있었고 서로 다독여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프로젝트를 할

때 의견이 안 맞을 때 충분한 회의와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 또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업무 분담을 하고 팀원들과 서로 협력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책임감이 높아졌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한 내에 최적의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단점은 추진력은 있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 덩벙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 두 번 되풀이되면 습관이 되는 것을 깨닫고 스케줄러에 메모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실천했을 때 그 일들이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았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메모하는 습관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프로젝트를 할 때 단점이 부각되는 부분이어서 고치고 발전하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역량]

[경험으로 역량을 끌어올리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목표 의식이 뚜렷한 편이라 지루하게 느껴지는 공부보단 성장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프론트엔드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웹에 대해 이해하고 시야를 넓게 보고 싶어 IT 교육 기관에서 응용 SW 웹 개발자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먼저, 졸업작품으로 당뇨 식단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프론트 업무인 웹 표준성, 웹 접근성을 고려한 HTML, 프로퍼티의 성격과 동작 원리를 이해한 CSS와 더불어 플러그인을 사용해 메인페이지 배너 슬라이드를 구현했고, JavaScript를 이용해 드롭다운 메뉴, 클릭 이벤트를 발생 시켜 스크롤 메서드를 사용해 구현하였습니다. 식단표 설계 페이지는 이용방법, 식단표, 주문하기로 탭 메뉴로 나누었으며 이용 방법에는 이미지 hover시 transform의 scale 사용해 확대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식단표는 테이블로 만들었으며 Date 객체를 사용하여 getMonth()를 이용해 이전 달과 다음 달을 알아내는 메서드를 만들었고 현재 달의 첫날, 마지막 날을 알아내 이번 달의 날짜만큼 1일씩 증가 시켜 다음으로 열로 위치시켜주었습니다. 현재 날짜에 맞는 식단표를 모달 창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디 저장을 클릭할 때 서버에 넘겨줄 수 있도록 Ajax를 사용했습니다. JavaScript로 매끄러운 시각적 표현을 구현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jQuery를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메틱 유통 수발주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한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를 나누어 매입/발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역량 중 하나는 백엔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한다 생각하기에 프론트와 백엔드 업무 모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를 서버에게 요청하는 비동기식 Ajax를 사용하여 그 데이터를 받아 JDBC로 처리하고 Servlet을 이용해 JSP를 불러와 EL과 JSTL로 저장된 값을 출력했습니다. 또한 Spring을 이용해 MVC 패턴을 이용해 게시판, 회원 관리, 로그인, 회원가입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저에게 도움이 됐고 코드 생산성이 높아짐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백엔드 친구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이 있었으며.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웹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를 잡고 ES6를 공부했으며 더 나아가 JavaScript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사용자와 가장 가까이 대화하는 것]

프론트 영역은 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의 모든 부분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물을 사용자가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 성취감이 높아졌습니다. 웹 프로젝트를 하며 프론트엔드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부분을 접하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 흥미롭습니다. 프론트는 백엔드에 비해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유행과 변화에 민감한 저의 성격에 잘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알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성격을 활용해 가치를 발하고 도움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 회사와 자신이 모두 성장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조화로운 개발자]

○○에 입사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트렌디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픽 툴과 다양한 언어를 습득한 것을 기반으로 디자이너와 백엔드 개발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환경 속에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에는 전체적인 업무와 직무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세미나에 참여해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스택을 지속적인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트렌드를 찾아가고 꾸준히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